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8.(일) 12:00
(지 면) 2026. 11. 9.(월) 조간

아세안 4개국 공무원,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 배운다

- 행안부, 11.9.~13.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재난관리 실무급 공무원 9명 초청연수
-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활용 강의와 현장학습, 국가별 개선 과제 토의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인천 송도와 서울·경기 일대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아세안 4개국과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AHA센터)의 재난관리 실무급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세안 재난관리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과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재난관리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재난관리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참가국의 정책 수요에 맞춰 강의와 현장학습을 연계하고, 국가별 재난관리 현황을 공유해 각국의 재난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관리 정책과 현장 경험 공유

참가자들은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과 제도를 비롯해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조기경보체계, ▲인공지능(AI)과 국외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배우고, 첨단기술을 재난 예방과 대응에 접목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학습도 진행한다. 우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재난안전 기술 업체 견학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둘러본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대응 활동과 민관 협력 경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별 재난관리 과제 논의를 통한 개선 방안 모색

참가자들은 자국의 재난관리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들과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우수 제도를 자국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해, 연수 성과가 현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황범순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이 축적해 온 재난관리 정책 경험과 첨단기술 활용 사례를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함께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주무관	소병임 (044-205-51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